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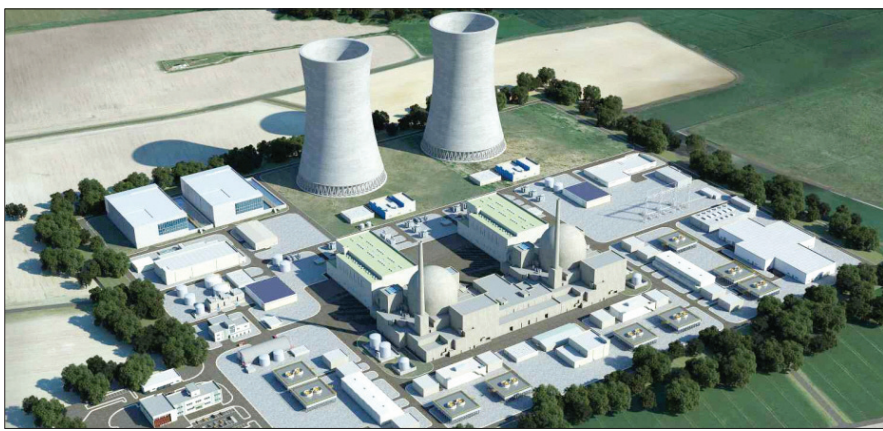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 한수원, 신규 시공사 찾는다

대우건설·두산에너지 컨소 협상 종료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업무공백 최소화... 공사일정 준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대우건설·두산에너지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한수원은 29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대우건설·두산에너지 컨소시엄과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공식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협상 종료는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양측 이견에 따른 것”이라며 “한수원과 시공사는 그동안 실무협상, 이견조정위원회, 경영진 협상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체코 신규원전 조감도.

/한수원

◆ 15개월 간 78회 협상에도 최종 결렬

한수원과 시공사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체코 사업 수주를 위해 사전 선정된 이후 팀코리아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4년 4분기 최종 입찰서 제출 과정에서 계약 금액과 조건에 대한 이견이 불거졌고, 지난해 6월 발주사(EDU II)와 주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총액확정 계약 방식을 두고도 맞섰다.

시공사 측은 국제 건설계약에서 특정 계약 방식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총액확정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고, 해당 방식 역시 최초 입찰 단계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공계약금액 및 단가 감액, 추가 공사

등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시공사 측은 체코가 아랍에미리트(UAE)보다 세금 부담이 크고 유럽 인력을 채용해야 해 간접비 비중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의 단가 인화와 추가 역무 요구를 수용하면 2조76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단가·간접비를 삭감해 계약금액인 7조7000억원을 맞출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방적 감액이 아닌 최초 입찰시 양사의 합의사항 및 외부 전문가 검증 결과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정 요구라는 입장이다.

양측은 실무협상(78회), 이견조정위원회(11회)에 이어 경영진 협의까지 거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 및 발주사 측이 요구하는 2028년 착공 지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기한을 10월 말로 정하고 최종 종결을 결정했다.

◆ 신규시공사 경쟁입찰 추진

한수원은 이에 따라 전체 사업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시행사 선정 입찰에 나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설계 및 인허가 등 필수 업무를 병행하고 주요 공정별 영향과 지연 요인을 점검해 촉진 방안을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한수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원칙을 전했다. 기존 시공사로 선정됐던 대우건설과 두산에너지 컨소시엄에도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신규 시공사 선정 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부대설비 설계 등 필수 역무는 별도 발주하고, 공정관리 문서 작성 및 임시숙소 대책 등은 한수원이 직접 수행하는 등 대체 계획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2028년 1월 부지정지 준비 공사 및 2029년 11월 본공사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美 기준금리 3.75~4.00% 동결 한은 “금융·외환시장 경계 유지”

연준 경기평가 ‘건조한-강한’ 조정
시장선 여전히 12월 인상전망 우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추가 인상에 대한 확답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12월 인상 전망이 여전히 우세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향후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과 국내에 누적된 금리 인상 부담을 함께 점검하며 경계를 유지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유지했다. 표결은 10대 2였다. 리사 쿡 이사과 베스 해백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0.25%포인트(p) 인상을 주장해 반대표를 던졌다. 경기 평가는 ‘건조한’에서 ‘강한’ 확정제로 높였고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 인상 효과 더 보겠다는 연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9월 인상 이후 일부 기업·가계의 금융·신용여건이 조여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화정책적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면서도 “아직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물가가 6년 가까이 2% 목표를 웃돌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음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FOMC 회의에서 내려질 결정을 미리 예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추가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은 인상 의지가 예상만큼 뚜렷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받아들였다.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전후로 금리선물에 반영된 12월 0.25%p 인상 기대는 90.7%에서 84.8%로 낮아졌다. 기대는 소폭 후퇴했지만 추가 인상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수준이다.

채권시장의 반응은 만기별로 달랐다. 29일 오전 한은 배포자료 기준 미 국제 2년물 금리는 4bp(1bp=0.01%포인트) 내

린 4.70%, 10년물은 2bp 오른 5.02%였다. 주가는 상승하고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장기금리 상승에 연준의 물가인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됐다는 시장 평가를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강한 경기 평가에도 회계에서 뚜렷한 추가 정보나 정책방향 안내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가 인상을 내다보는 기대는 낮아졌지만, 물가를 잡을 대응이 충분하지에 대한 우려는 남았다는 해석이다.

◆ 대외정책 변수와 누적된 금리 부담 함께 점검

정부는 이날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의 향후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국내 금리 상승이 취약차주에게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이행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황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기존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차주·금융업권 영향을 살펴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시장에 대해서는 10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해 다소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의 전이 가능성을 살펴 11월 발행물량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긴급비어백(국고채 조기상환) 등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도 권민수 부총재 주재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중동 긴장과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AI 투자 불확실성 등을 살폈다. 권 부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BOJ)의 정책 결정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도 거론하며 “앞으로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난임 여성

“난임은 제아이가 아닐 줄 알았어요”

AGE: 32
BLOOD TYPE: A+

여성암 경험자

“진짜 시작은 퇴원 후, 정기검진이더라고요”

AGE: 37
BLOOD TYPE: B+

오늘 여성의 웰니스에
꼭 맞는 보험이 되기 위해

여성의 현실 가까이

갱년기 여성

“이제는 산부인과보다 정형외과를 더 자주 가요”

AGE: 54
BLOOD TYPE: A+

AGE: 33
BLOOD TYPE: O+

AGE: 42
BLOOD TYPE: AB+

AGE: 29
BLOOD TYPE: AB+

AGE: 38
BLOOD TYPE: O+

임신과 출산, 그 안의 고민을
병명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갱년기 그 이후의 삶까지

여성을 위한
현실 밀착형 보험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s://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86213호(2026.08.06~2027.08.05)